

가톨릭 산업의학연구소의 탄생

가톨릭대 이 광 목

산업보건사업이 대한석탄공사에서 시작되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진폐증과 소음성난청 그리고 진동증후군과 관련된 환경관리, 건강진단 장해보상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었고 이외에 광부들의 재해에 관한 조사, 정기건강진단 그리고 채용시 건강진단과 적성검사의 규정도 마련되어 실시하였었다. 당시의 적성검사중에 배근력과 악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가 있었다. 배근력계의 잣은 고장과 피검자의 허리부상 등이었다. 이 근력측정은 광부들의 업무가 중근노동이라는 관점에서 포함시켰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나라의 구직난은 극히 심했던 때이어서 광부들을 모집할때도 경쟁이 심하였다.

그때의 적성검사 기준으로 채택된 것은 배근력의 경우 생산직은 150 kg, 기타 기술직과 행정직은 120 kg이었다. 그러나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좋은 체력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였다. 이로 인해서 250 kg 한계인 계기가 가끔 고장이 나기도 했고 완전 파손된 일도 있었다. 혹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허리를 펴므로써 허리를 다치는 일까지 있었다.

이렇게 한 석탄광업사업에서 시작된 산업보건은 아무래도 그 대상이 광부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광부와 관련된 것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전반적인 산업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의학연구소가 처음 설립된 곳은 가톨릭대학 의학부 이었다. 의학부 부속 연구소로서 가톨릭산업의학연구소가 1962년 9월 5일에 발족되었는데 실제 설립일자 9월 10일로 되어 있으나 창립 모임은 9월 5일 이었다. 이 연구소는 당시 가톨릭대학 의학부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 였던 조규상교수의 숙원사업이었다. 설립 당시 재원은 서독의 가톨릭계의 모재단의 원조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 (1962. 9.27 의사시보).

그러나 실제로 발족된 당시에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100 만원 출자로 시작된 것으로 기억한다. 장소는 예방의학교실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2번지)이었고 학생실습용 환경측정용기재가 그 기본기재이었고 발족당시, Midget impinga, Sound level meta, 포집용 Pump, high Volume Sampher 분진측정용 micrometer, 가스검지관, 조도계, 등이 보완되었었다.

설립일자에 대해서 당시 신문에는 서로 다르

게 보도 되었는데 왜 서로 다르게 보도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몇가지만 열거하여 보면 가톨릭대학 교지인 성의월보에는 9월 28일, 경향신문에는 9월 1일로 의사신문은 9월 24일로 보도 되었었다. 실제 문교부에 대학 부설기관으로써 등록된것이 언제인지는 확인 하지는 않았지만 개설 축하 연회는 9월 5일 이었다.

이날 모임은 당시 중앙의료원원장 이셨던 박희봉신부님, 의무원장이신 윤덕선교수(외과), 그리고 연구소의 직원들이었다.

초대 연구소 소장에는 조규상교수였고,

- 노동생리부장 정성장(생리학 조교수)
- 환경위생부장 정규철(예방의학 강사)
- 산업병리부장 이호영(병리학 조교수)
- 노동여양부장 심봉섭(생화학 조교수)
- 산업심리부장 오원철(의예과 강사)
- 사회과학부장 황정인(의예과 강사)
- 직업병진료부장 이찬세(내과 교수)
- 총무과장 김중훈

등 여러분이 각기 분담하여 주셨으며, 이 외에 필자와 고인이 된 윤학영조교 그리고 김천호조교가 있었다.

이때 고문으로 위촉한 분으로서는 김창규(대한중석광업, 사장), 이병철(삼성물산), 김노성(?), 유유선(medical center 원장), 김문영(보사부 노동국장), 이규철(?), 최영태(대한석탄공사, 보건관리실장), 심상환(서울의대 교수), 이준구(?)이었다.

첫모임에서 회의겸 축하 연회를 열었었는데 당시 조교들은 참석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수가 없다. 실험실에서 대기하면서 맥주 음료수, 안주등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는 기억만 남는다.

연구소 설립후 제일 첫번째 일이 기관지「한국의 산업의학」의 발간과 산업의학연구소 소개를 위한 홍보지의 인쇄였다고 생각된다.

이 산업의학연구소는 조규상교수가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일본의 노동과학연구소가 모델이 되었었고 잡지의 형식도 일본의 勞働의

科學을 많이 모방하였다. 그래서 「한국의 산업의학」도 특집제를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Topic를 내세우고 이에 대한 해설을 해준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첫 특집으로는 “산업재해의 안전관리”이었다. 당시에는 산업의학 관계 연구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학술지가 아닌 계몽지로서 발간되었으며, 산업보건은 산업재해부터 시작하는것이 효과적이라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천과제도 재해관계를 다루게 되었다. 이때 정부에서는 보사부 노동실태조사라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산업별로 근로자의 사망자수, 질병자수, 상해자, 재해원인등이 보고되고 있었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가 전혀 강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안전관리의 근본문제를 소개함으로써 재해를 보는 시각을 바로 잡아 보고자 하였고 재해통계를 산출하는 몇가지 재해율의 산출식을 소개하였다. 당시만 해도 재해율은 1000명 단 재해건수만이 이용되고 있었는데 이외에 도수율이나 강도율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월간으로 발행되던 이 잡지는 전국의 200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사장과 보건관리자에게 각각 무료로 발송되어 왔으나 후에 학술지의 성격을 띠면서 계간으로 바꾸었다.

연구소가 설립된후 첫 사업은 대한중석 상동광업소에 대한 작업환경조사와 근로자 건강진단이었다. 회사의 의뢰에 의해서 처음 실시된 일이며 국내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 생각된다. 그 날이 바로 1962년 11월 1~6일까지 였는데 이때 조규상, 정규철, 윤학영, 오월철선생 그리고 필자가 조사에 임했으며 국내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므로 한국일보사 과학부 이종수기자가 동행했었고 그 내용이 “산업의학의 첫메스”란 제하에 대서특필되었다. 이로 인해서 작업체로 부터 적성검사, 환경조사등의 의뢰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실무자로서는 감당하기는 어려웠으나 즐거운 일이기도 했다.

이렇게 탄생된 가톨릭산업의 연구소는 그 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지금 생각하여 보면 어딘가 아쉬운데가 있다. 27년전에 비해 발전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무엇인가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내 탓일까. 사회 탓일까. 환경 탓일까. 다시 가다듬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연구소와 관련된 일은 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음은 대한중석광업 상동광업소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일을 회고하여 보고 싶다.

상동광업소는 필자와도 그전에 인연이 있었던 곳이라 필자는 더욱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처음 가졌던 인연과는 전혀 성격이 달랐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대학을 졸업 후 처음 취직이 된 곳이 실은 상동광업소의 화학처리공장이었다. 그때 새로 설립된 이 공장은 가동이 안되고 있었을 때 이었고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텅스텐과 비스무트의 제련공장이었다. 부임하러 산간오지인 상동에 내려갔더니 본사와 현지의 소장과의 의견차이로 취업이 거부되었다. 본사에서 발령을 받고 갔는데도 연락을 못 받았다는니 몸이 약해보인다는니 서울에 직장이 생기면 서울에 올라갈 것 같다는니 하면서 직책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3일간 세월을 보내다가 사표를 내고 돌아 오려는데 장마가 저서 길이 끊겨버렸다. 할 수 없이 1주일을 묵으면서 사내의 후생시설인 당구장에서 당구치기로 세월을 보냈는데 이때 상대가 바로 보건관리자였다. 후에 이분을 여기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후에 충주비료 보건관리자로 계실 때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총복지부를 맡으신 일이 있는 분이였다. 아마 이분은 나를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후 필자도 이에 대한 일을 그분께 말씀드린 일이 없다.

전혀 다른 입장에서 광업소소장과 보건관리자를 대하고 보니 필자를 대하는 것이 전혀 달랐다. 미안한 감이 들을 정도였다.

석탄광업의 갱내만 들어가보던 필자는 금속광업의 갱내에서 새로운 것을 느꼈다. 금속광업의 갱내는 갱목이 그리 많지 않고 암석으로된

동굴같은 느낌이어서 위험성이 적을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메탄가스의 위험이 없다는 점이 좀 안심이 되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불편한 것은 안전모에 안전등이 달리지 않고 카바이트불을 들고 다니는 것이었다. 그런데 금속의 산화작용으로 산소결핍이 심해서 카바이트불이 자주 꺼져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반대로 갱내부가 깨끗해서 아무곳에서나 앉아서 쉴 수가 있었다. 석탄광업의 갱내는 휴게실 이외에서는 앉을만 한 곳이 없다. 모두 석탄 먼지이거나 물에 젖은 석탄이었다.

이때 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1. 작업적성에 대한 조사성적
2. 재해에 대한 조사성적
3.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성적
4. 건의 사항

등이었는데 실제로 보고서가 인쇄된 것은 그해 12월이었다. 이것은 보고서로서는 세번째인 셈인데 정리기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었다. 산업의학연구소로서 가장 먼저 발표한 보고서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광업제련공사 장항제련소
유해작업환경조사보고서 (1962.11월)
2. 동양세멘트 삼척공장
작업환경조사보고서 (1962.12월)
3. 대한중석관하 상동광업소
작업적성 및 작업환경조사보고서 (1962.12월)

설립된 당해년에 3가지 보고서를 내보내면서 처음 하는 보고서 작성이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정 보완도 수차에 걸쳐서 행하여졌다. 그러나 이럴때 마다 각 언론에서 크게 보도해주어 산업보건의 화제가 되었고 여기에 종사하던 필자로서는 약간의 보람을 느꼈었다.

이 해에 또 하나의 사업은 보사부에 의뢰에 의해서 보건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된 일이었는데 동양세멘트 조사때 환경측정용 기구와 비행기 탑승과 관련된 일들에 관한 소개는 다음으로 미룬다.